

반도체 실적 기대감에도… 4분기 증시 ‘금리·유가’ 변수

주요 증권사 4분기 전망

AI 투자 속도조절 우려, 증시 발목
삼전·하닉 자사주 이달 매입 종료
외국인 수급, 4분기 방향 가를 듯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3분기 들어서는 박스권에 갇혔다. 인공지능(AI) 속도조절론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파괴적’ 금리 인상, 국제 유가 급등, 미국 국제금리 급등 등 대형 약재들이 증시를 짓누른 탓이다. 3분기 증시를 흔든 불안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이제 투자자의 시선은 4분기 증시로 향한다. 메트로경제는 대신·미래에셋·한국투자·신한투자·메리츠증권 등 주요 증권사의 4분기 전망을 들어봤다.

◆반도체 실적 기대에도… 지수 상승 속도는 변수

증권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4분기 코스피는 7500~9000선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증권은 코스피 6000~9300선을 예상 범위로 제시했다. 다만, 상당 도달 시점이 내년 1분기로 늦춰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수출 호조와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실적 개선은 상승 요인이지만, 유가와 채권금리가 안정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지수 범위가 넓은 만큼 같은 전망 안에서도 대외 여건에 따른 등락 가능성이 함께 반영돼 있다.

증권사들은 4분기에도 변동성을 예상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했다. 이유는 4분기부터 반도체 등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겠지만,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변수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래대금과 고객예탁금도 줄고 있다.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중동 지역 전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란)은 합의하고 싶어 한다”며 이번 주 이란과 추가 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같은 날 “우리를 향한 어떤 공격, 설령 종말의 전쟁이 오더라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는 외교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 매우 합리적 제안이 테이블 위에 있

다”고 했다.

치솟는 유가와 물가(미국 금리 인상 요인)는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CNBC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미 30년물 국제금리는 이날 장중 5.613%까지 치솟으며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다. 미 30년물 금리는 6일 연속 상승세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데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대규모 국제 발행에 대한 부담까지 겹친 영향이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가 최근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데 이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연) 총재도 런던의 한 행사에서 연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반도체가 위안이다. 한국수출입

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트렌드포스 등 분석에 기반해 지난 15일 공개한 ‘3분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메모리 반도체와 로직 IC(연산·제어 담당 반도체)의 가파른 성장 등으로 1조6000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증권가는 높이도 올라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05조9030억원에서 21일 기준 111조3772억원으로 3개월 사이 5% 상향 조정됐으며,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78조1291억원으로 석 달 전(76조9134억원) 대비 2% 상향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예상 실적에 비해 낮아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미국 국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AI 관련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증가세도 주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하며 투자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말과 내년 말 미국 연방기금금리 전망치를 종전보다 각각 0.5%포인트 높였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와 별개로, 거래 위축과 고금리가 시장 전반의 상승을 제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증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신한투자증권은 3분기 들어 거래대금과 고객예탁금이 줄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업종의 이익 전망이 낮아지

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주도력 유지 전망… 자사주 매입 종료는 부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목해야 할 업종은 있다. 이들 증권사들은 공통적으로 반도체 업종을 꼽았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AI 관련 투자와 수출 호조를 근거로 반도체 투자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반도체를 4분기 유망 업종으로 꼽았다. 메리츠증권은 AI 개발 속도 조절 논의가 나오더라도 AI 인프라 관련 주식의 전망을 곧바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AI 모델 간 경쟁과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외 업종으로는 대신증권이 방산과 은행을, 한국투자증권이 방산과 화장품 등 수출 관련 업종을 관심 대상으로 제시했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의 하방을 지지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이르면 10월 중순 종료될 전망이다. 두 대형 반도체주가 제공하던 수급 ‘방어막’이 걷히면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관의 기존 순매수 규모를 고려하면 두 회사의 매입 물량을 기관만으로 대체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봤다. 매입 종료 이후 외국인이 반도체 대형주를 다시 사들이는지에 따라 지수의 상승 탄력도 달라질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국민연금 한 달 새 181조 줄었다… 국내 주식서 125조 ‘뚝’

기금 운용수익률 12%p 이상 하락 평가액 7월 말 1684조1730억 기록

국민연금 기금자산이 국내 증시 조정 여파로 한 달 만에 181조원 넘게 감소했다. 연초 이후 27%를 웃돌던 기금 운용수익률은 7월 들어 14%대로 낮아졌다. 특히 국내주식 평가액이 125조원가량 줄어들며 전체 기금 감소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3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은 1684조1730억원으로 집계됐다. 1865조5760억원이었던 6월 말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181조4030억원(9.8%) 감소했다.

연초 대비 기금 운용 수익률은 7월 말 기준 14.84%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27.22%에서 12%포인트 넘게 내려앉은 것이다.

이는 국내 증시가 7월 들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6월 말 8476.48에서 7월 말 6595.45로 한 달 동안 약 22% 하락했다. 이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연초 이후 수익률도 107.37%에서 60.11%로 47.26%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국내주식 수익률은 주요 자산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연초 이후 상승률이 56.51%였던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국

내주식 수익률은 여전히 시장 상승률을 웃돌았다. 이외에 해외주식은 10.72%, 대체투자는 4.09%, 해외채권은 0.72%를 기록했으며, 국내채권은 -3.36%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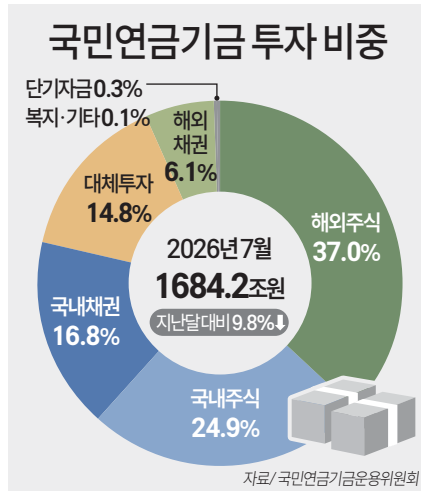
기금 규모가 크게 줄어든 데에는 국내주식 평가액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 평가액은 6월 말 543조2040억원에서 7월 말 418조5580억원으로 약 125조원 감소했다. 전체 기금에서 국내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29.1%에서 24.9%로 4.2%포인트 낮아졌다.

해외주식과 채권 등 다른 자산에서도 평가액 감소가 나타났다. 해외주식 평가액은 6월 말 661조원에서 7월 말 624조원

으로 약 37조원 감소했다. 대체투자는 261조원에서 249조원으로, 해외채권은 110조원에서 102조원으로 줄어들었다. 국내채권 역시 288조원에서 283조원으로 줄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은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 인공지능(AI) 투자 지속 가능성 우려로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기금 전체 운용 수익률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및 해외 채권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 등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평가가치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초 대비 80.9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대체투자 수익률에는 이자·배당수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등을 반영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빚 독촉, 7일간 7회까지만… 채무자 요청 땐 최대 3개월 유예

금감원, 금융채권 추심 민원사례 안내 야간 연락·타인 채무 공개 ‘불법추심’

금융회사 등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금융채권에 대해 7일 동안 7회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사고나 질병, 재난 등으로 당장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는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채권 추심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토대로 이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추심 연락 횟수에는 방문과 전화, 우편, 이메일 등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통화를 끝낸 경우,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한 경우 등은 일부 횟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자택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주변에 채무 사실을 알려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 전화·방문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면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공개하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 역시 불법추심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사고나 질병, 중대한 재난 등으로 즉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사정을 알리고 최대 3개월간 추심 연락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추심 연

락을 원하지 않는 특정 시간대나 연락 수단을 지정해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추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법원 판결 등으로 채권이 확정되면 새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여부 등에 따라라도 소멸시효 계산이 달라진다.

금감원은 소멸시효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채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법원에서 소장 등을 받으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추심이 의심되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사진·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폭행이나 협박 등 긴급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으로 피해를 본 경우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통해 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변호 이용 중지, 수사 의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 상황이 어려운 소비자는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